청년기 남녀 대학생의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관한 연구

The Perceptions on Youth's Family Role Salience

우송대학교 의료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홍 성 례*
Dept.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Woosong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 Hong, Sung-Ry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n youth's family role salience. The participants in this research were 526 university students(male 200, female 326). All respondents submitted their answers on a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measurement instruments were Family Role Salience Scale(Hong, 2001), Self-esteem Scale(Rosenberg, 1979), and Gender Role Attitudes Scale(Kang, 2000).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 ests, and multiple regression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twofold. (a) The young male exhibited higher levels of family role salience (marital role salience, parental role salience, and homecare role salience) perceptions than the young female did. (b) Self-esteem showe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erceptions of youth's family role salience, whereas family socioeconomic status was a non-significant factor. However, gender role attitudes, parent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religion showed different influences on the perceptions of family role salience for young male and female.

Implications for educator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주요어(Key Words) : 청년기(youth), 가족역할중요도(family role salience), 배우자역할중요도(marital role salience), 부모역할중요도(parental role salience), 가정경영역할중요도(homecare role salience), 인식(perception)

Ⅰ. 서 론

인간 사회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청년들의 가치관과 비전에 달려 있다고 볼 때 청년기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문화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긴 하지만 어느 사회에나 청년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나 달성해야 될 발달과업들이 있다. 동성친구나 이성친구와의 성숙한 인간관계 형성, 남성이나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역할획득 및 수행, 부모와 다른 성인으로부터의 정서적·경제적 독립, 결혼 준비, 가치관 및 윤리의식 확립, 사회적 책임감 실천 등이 그것이다.

발달단계상 청년기는 한 개인이 스스로를 책임지고, 나아가 사회와 가정의 새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된 성인으로서 첫발을 내딛기 위한 준비단계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년 후기는 추상적 사고를 통하여 시간적 조망이 현재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와 미래로 확장되는 시기로서 청년들은 자신의 위치, 역할, 능력 등을 검토해 보는 탐색을 통하여 자아정체감을 확립(조복희·정옥분·유가효, 1997)해 나가는 과정에서 장차 결혼과 가족에 대한 자신의 가치와 관점, 동기, 능력, 흥미 등을 점검하고, 이상적인 가족역할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족들과 조금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려는 가족지향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서도 증가하고 있으며, 직업역할에 두는 비중이 줄어들고 가족역할을 중요시하는 정도도 증가하였다(홍성례, 2001). 또한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김승권, 2008)에서 한국인들이 자신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 것은 현재의

* 주저자·교신저자 : 홍성례 (E-mail : finetree7@hanmail.net)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로 나타났으며, 이어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가족의 건강 수준이 공동 2위였고, 10위 안에 든 요인 가운데 절반인 5개가 자신의 가정과 관계된 것(현재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가족구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등)이지만, 직업·직장과 관련된 것은 1개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가정을 삶에서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최근의 사회적 현상은 생의 목표, 개인의 성공여부를 직업적·사회적 성공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감소하고, 결혼 및 가정, 그리고 가족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해체 위기의 증가와 함께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한국 여성 1인당 평균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의 평생 예상출산횟수)은 1990년 1.6명, 2000년 1.4명에 이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통계청(2009. 8. 19)이 발표한 '2008년 출생통계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기준 1.19명으로 나타났다. 늦은 결혼과 늦은 출산으로 산모의 평균 연령도 30.79세로 계속 높아지고 있어, 낮은 출산율과 산모 고령화로 인해 국내 저출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맞벌이 가족 증가 및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 증가와 함께 기혼 여성의 취업에 따른 남성의 가족내 역할 보충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부부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모역할을 통한 보람과 기쁨은 남성과 여성의 우울감을 낮추는 주요 요소일 뿐 아니라 남성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차승은·한경혜, 2006a)도 있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결혼 지위와 부모 지위(배우자역할과 부모역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유형은 다른 역할 유형들(역할 없는 유형, 부모지위만 있는 유형, 결혼 지위만 있는 유형)보다 신체·정신건강이 더 양호함을 제시하는 연구(차승은·한경혜, 2006b)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결혼생활과 가족생활이 개인에게 역할갈등이나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함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변화와 함께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고 남성들의 가족역할 참여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기 남녀 대학생들이 가족과 관련된 역할들에 부여하는 의미와 가치, 중요도 등이 어떠한가를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부장적이고 성편협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청년기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과 관련된 역할들이 현재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가족역할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효과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결혼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결혼하게 될 예비 부부인 청년기 남녀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인식을 파악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를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청년 후기의 대학생들이 가족역할에 대해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래에 결혼과 가족 속에서 생활하게 될 청년기 대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결혼 및 가족생활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가족역할중요도

가족역할중요도에 대한 연구는 Amatea 등(1986)에 의해 실증적으로 이루어졌다. Amatea 등(1986)은 가족 및 직업역할에 대한 중요도를 측정하는 Life Role Salience Scales(LRSS)(생활역할중요도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생활역할중요도 척도는 배우자 역할중요도, 부모 역할중요도, 가정경영 역할중요도 그리고 직업 역할중요도의 네 가지 역할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생활역할중요도(Life Role Salience)는 '개인생활에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여러 역할에 대해 부여하는 각각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역할중요도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배우자 역할중요도, 부모역할중요도, 그리고 가정경영 역할중요도의 세 가지 역할영역을 가족역할중요도로 분류하여, 청년기 남녀 대학생들의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역할중요도란 '가족생활에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족 역할에 대해 부여하는 각각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의미한다(홍성례, 2001).

가족역할에 대한 구분은 학자들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가족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배우자역할과 부모역할, 그리고 이에 부가하여 가사·가정경제관리·생계부양자 역할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가정경영 역할을 중심으로 가족역할 중요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역할수행에 주요한 촉진 요인의 하나로 Pleck(1985)은 가족역할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동기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홍성례의 연구(1995)에서도 가족역할에 대한 동기화가 기혼 남성의 가족 관련 역할수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가족역할에 대한 동기화가 높을수록

배우자 역할수행과 부모 역할수행, 그리고 가사분담자 역할과 부양자역할 등을 포함한 가족 역할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한유진・김선애(2007)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양육수행은 스스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얼마만큼의 양육 수행 유능감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변인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보다는 실제적인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가족 관련 역할들에 대한 가치나 태도가 그 역할들의 수행에 매우 중요함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초・중・고 11,25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꼭 있어야 한다'는 태도가 27.0%, '없어도 상관없다'는 태도는 17.3%로 나타났으며, 48.2%는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답하였다.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남학생(30.8%)이 여학생(23.0%)에 비해 더 많았고,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응답은 여학생(21.8%)이 남학생(13.2%)보다 많았다(이삼식 외, 2006).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부모됨에 대한 동기나 의미가 퇴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동기를 살펴본 Morahan-Martin(1991)의 연구결과에서 남자 대학생은 여자 대학생에 비해 연속성, 전통, 안정, 부모기의 역할, 자녀를 가짐으로써 얻는 목표 및 인센티브, 부모됨을 통한 사회적 지위 획득 등과 관련된 동기가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남자 대학생들의 부모됨 동기가 여자 대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대학생의 부모역할 인지에 대한 연구(권미경, 2004)에서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에 비해 전체 부모역할 및 하부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여자 대학생들이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지은(2000)의 연구에서도 여자 대학생들은 남자 대학생들 보다 부모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이해 및 양육방법에 관련된 영역을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생들은 부모가 되는 동기로 혈연적 유대나 전통적 규범 등의 사회적 압력이나 지위보다는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동기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유안진・신양재, 1993;유계숙・정현숙, 2002;조성연, 2007)이 발표되고 있다. 또한 아버지는 거칠고 어머니는 부드러우며, 아버지는 엄격하고 어머니는 양육적인 전통적 역할구분이 이제 변화하고 있어, 양성적인 부모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자녀양육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뚜렷한 역할구분보다는 담당하는 역할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Woodworth, Belsky, & Crinic, 1996)는 지적과 함께, 생물학적 아버지로서의 역할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사회학적 아버지로서의 역할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정옥분・정순화, 2008)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혼 남성들이 부모역할에 많은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는 다수의 연구들(Lamb, 1986;Lamb, Pleck, & Levine, 1987;Coltrane, 1996;홍성례, 2001)에서도 연구자들은 아버지가 좋은 양육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에 아버지에게는 주로 생계담당자의 역할만을 강조해왔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가족의 다양한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존재로 아버지 역할의 의미가 조정되고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을 살펴본 홍성례(2001)의 연구에서는 가족역할 중요도 중에서 가정경영역할중요도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부모역할중요도, 배우자역할중요도 순이었다. 기혼 남성들이 여러 역할들 중에서 가정경영역할중요도에서 가장 높은 인식수준을 보인 연구결과는 직업역할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직업적 성취를 삶의 의미와 목표로 여겨왔던 직업지향적인 이전 세대와는 달리, 젊은 연령층의 기혼 남성을 중심으로 가정에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치를 부여하며 가족영역에서 생활의 즐거움과 만족을 찾으려는 가족지향의식이 나타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양상이 뚜렷이 보이고 있으며, 직장에서의 업무와 가정생활에서의 균형을 점점 더 중시하고 있다. 가정생활과 개인의 취미, 여가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정영철, 2004), '개인생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다. 기혼 여성의 취업률 증가로 남녀가 수행하는 역할 조합이 동일해지고, 가족에서는 양육하는 자녀의 절대적인 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남녀가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Arber & Cooper, 2000). 남녀의 부모역할 수행에 관심을 둔 Simon(1995)은 여성에게는 직업역할을 그리고 남성에게는 반대로 가족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결혼이나 부모됨이 남녀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사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차승은・한경혜, 2006a). 실제로 최근의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경향이나 기혼 여성의 취업률 상승과 같은 거시 지표상의 변화들은 우리 사회에서도 적어도 일과 가족의 역할조합이 동일한 기혼의 취업 남성과 여성들 사이에서는 가정경영역할과 함께 배우자 및 부모 역할 경험이 유사할 가능성도 있음을 제시한다. 따라서 남녀의 가족역할에서의 동질화나 최근의 사회문화적인 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한국 젊은 청년들의 의식을 중심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역할들과 관련하여 과연 어떤 역할에 어떠한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는 부모역할 이외에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남녀의 의식과 가치 차이에 있어서도 부모역할에 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족역할 전반에 관한 연구들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그동안 가족학자들이 결혼과 부모역할의 경험이나 의미에서 남녀의 성차가 있음에 주목해온 점(Bernard, 1972;차승은・한

경혜, 2006a)을 고려하여, 젊은 청년들의 가족역할중요도에 있어 성차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관한 국내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미래의 결혼과 가족형성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족역할중요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가족역할들이 새로운 의미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족관련 다중역할들을 독립적이고도 복합적으로 다루어 가족역할에 배우자역할, 부모역할, 그리고 가정경영역할의 세 가지 영역을 포함시켜, 미래에 결혼과 가족생활을 경험하게 될 미혼의 청년기 남녀 대학생들이 가족역할들에 부여하는 역할중요도가 어느 정도 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가족역할중요도 관련 변인들

1) 가족역할중요도와 자아존중감

청년기의 자아존중감은 발달적 변화와 적응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의 행복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중 하나로, 자기 자신을 가치와 능력이 있는 존재로 인식하여 각 개인이 자기 내면에 지니게 되는 힘이다(Winter, Myers, & Proud, 2002). 여러 연구들(Winters, Myers & Proud, 2002;Gould, Greenberg, Velting, & Shaffer, 2003)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청소년은 비행과 관련이 있고, 자기거부적인 행동이 자살행동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여러 적응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청년기의 자아존중감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들에서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남녀의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남정홍, 2001;노선, 2003;엄혜정・정혜정, 2006)도 있고,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김태현・이영자, 2005;홍성례, 2007)도 있다. Donovan, Leavitt, & Walsh(1990), Fish & Stifter(1993)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자신의 문제해결에 더 자신감을 보이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에 양육자로서의 부모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어 성공적인 부모됨(부모역할, parenting)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Jaffe(2000)는 부모역할이 개인적 자질, 즉 자아존중감, 자기확신, 교육수준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경우에 부모역할중요도 인식이 더 높을 수 있음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들로 볼 수 있다. 대학생의 부모됨 동기에 관한 조성연(2007)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와 이타적・정서적 동기에는 부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통적・규범적 동기에는 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됨의 동기에 있어서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와 이타적・정서적 동기수준이 낮아지고, 전통적・규범적 동기수준은 높아졌다. 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과 평가인 자아존중감이 가족역할중요도 인식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음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청년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반적인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을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연구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을 근거로 미래 결혼과 가족을 새롭게 구성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가족역할중요도를 인식하고 가족을 형성하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청년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므로,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가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남녀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가족역할중요도 인식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가족역할중요도와 성역할태도

청년 초기의 남성과 여성은 자신들의 성역할에 대해 스스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그에 관한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성한다(홍성례, 2006). 청년기의 성역할태도는 미래의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 및 의미부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역할태도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 모든 선행연구들에서 일관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좀더 평등주의적인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선미・김경신, 1996)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갈수록 더 근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양명숙, 1996;황은, 2004;홍성례, 2006)에서도 남자 대학생보다는 여자 대학생이 더 근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1977년~1996년에 걸친 성이데올로기의 변화에 대한 Brewster와 Padavic(2000)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여,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성역할 태도의 변화에 있어서 여성들에 비해 지체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은 생계부양자로서, 여성은 가사와 자녀양육의 주요 책임자로서의 성역할 구분이 비교적 분명하던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는 여성들의 지속적인 취업 증가로 인해 성역할의 경계성이 모호해지고 있다(Maume, 2006). 그러나 한편에서는 비록 많은 남성들이 그들의 아버지들이 했던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집안일을 하고는 있지만, 부인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Lamb, 1997;Walsh, 2002)는 지적도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들은 교육수준 향상과 자아성취에 대한 열망 등에 의해 자발적인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강한 남성들과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가정과 직장 일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경험하고 있다. 가족구조, 기혼 여성의 취업증가, 성역할 가치관 등에 있어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남성들의 가족역할 참여에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그리고 맞벌이

가족에서 남편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한다할지라도 대부분의 부부들이 가사노동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지 않다(Markman, Stanley, & Blumberg, 2001)는 현실에 있어서, 개인의 성역할태도가 가족역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삼식 외, 2006)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육아에 있어서 '부부가 함께'라는 태도가 84.9%로 나타났고, 부인이 육아를 전담해야 한다는 태도는 14.2%였다. 부인의 육아 전담에 대한 찬성은 남학생(19.0%)이 여학생(8.9%)보다 월등히 높았다. 맞벌이인 경우에도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는 태도가 38.1%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 남학생이 더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한국 젊은 세대의 가족역할 인식에 대한 성역할 태도 양상의 일면을 예견해 볼 수 있다. 한편,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 부부 공동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남편의 자녀양육수행이 아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경신・김미란, 1988)도 있다. 한유진・김선애(2007)의 연구에서는 부부간에 공평한 역할가치관을 갖고 있고, 아버지도 자녀양육수행에 대한 유능감을 갖고 있는 사람일 때,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이 가족역할중요도 전반과 성역할태도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연구결과들로 판단해 볼 때, 가족역할중요도 인식도 성역할태도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부부의 역할관계를 보다 평등하게 인식할수록 결혼생활이 행복함을 제시하는 연구(Olson & Olson, 2000)는 성역할태도가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변화하고 있는 성역할태도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결혼과 가족생활을 영위하게 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역할태도와 가족역할중요도 인식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여성 취업률의 급격한 향상과 함께 성역할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향후 우리 사회에서는 성역할 태도에 따른 역할분담의 논리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년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성역할태도가 가족역할 중요도 인식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3) 가족역할중요도와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정보화시대 가족공동체에 대한 연구에서, 조정문 외(1999)는 정보사회에서는 비대면성, 개별성, 그리고 확장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의사소통이 증대되고 남녀 간의 역할 구분이 약화되며, 부모자녀관계에서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가 약화되고 서로간의 상호독립성과 각자의 자율적 판단이 강조될 것이므로, 가족도 생물유기체처럼 높은 응집과 몰입을 유지하기보다는 느슨한 관계망적 성격을 지닌 네트워크가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함인희(2000)는 정보사회는 부모자녀관계가 친밀해질 가능성과 소원해질 가능성이 공존한다고 보았다.

부모역할의 중심에 부모-자녀관계라는 '관계'의 축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부모-자녀간의 쌍방향적 상호작용은 전생애에 걸친 중요한 발달 주제라 할 수 있다. 부모역할은 자신이 출생한 근원가족(family of origin)에서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 자신의 부모와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였던 성인들은 그들의 자녀와도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고 양육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장과정에서 부모와 좋지 못한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결함을 보이게 된다(정옥분・정순화, 2008). 이처럼 부모역할은 자신의 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게 된다(van IJzendoorn, 1992).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경험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어머니와의 초기 양육 경험이 이후의 적응에 중요함이 밝혀졌는데, Balbernie(2001)에 의하면 어린 시절의 경험이 뉴런들 간의 연결뿐 아니라 생화학적 반응의 패턴을 결정하고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준다(방희정, 2009 재인용)고 제시하고 있다. Cabrera 외(2000)는 아버지의 개입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청소년기 아버지와의 강하고 밀접한 애착관계는 보다 바람직한 교육적・행동적・정서적 결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arke(1996)에 따르면, 아버지의 자녀 양육 스타일은 자기 부친의 양육행동을 모방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아버지 자신의 자녀에 대한 관여의 결정요소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양육을 통해 자녀가 발달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도와주려는 과정에서 부모는 의식적, 무의식적인 갈등을 겪게 되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부모 또는 새로운 성숙의 단계로 변화한다. 즉 성인이 세상을 항해해 나가는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방법은 그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새롭게 변화된다(방희정, 2009).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어머니 역할 혹은 아버지 역할을 자녀가 어떤 내적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가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나 부모와의 관계만족도는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역할중요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청년기 남녀 대학생들이 가족역할중요도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부모역할 영역 이외에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가족내에서의 역할평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년들이 가족 관련 역할들에 부여하는 의미와 가치, 중요도 등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젊은 청년들 특히, 청년기 남녀 대학생들에게 있어 가족역할중요도가 어떠한 양상을 띠는가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가족역할중요도와 관련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등의 주요 변인과 함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들(종교,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이 청년기 남녀 대학생들의 가족역할 중요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연구문제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대학생의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한 4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미혼의 남녀 대학생 526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구성은 남자 대학생 38.02%(200명), 여자 대학생 61.98%(326명)로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령은 여자 대학생의 경우 평균 20.28세, 남자 대학생 평균 21.57세이며,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77세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은 33.71%, 2학년 24.00%, 3학년 22.29%, 4학년 20.00%를 차지하였다. 종교의 경우 개신교(기독교) 30.04%, 천주교 14.07%, 불교 11.60%, 기타 0.57%이며,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43.73%였다. 자신을 포함하여 형제자매의 수는 평균 1.78명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가족역할중요도

가족역할중요도는 배우자역할중요도, 부모역할중요도, 그리고 가정경영역할중요도의 세 가지 하위역할영역으로 구분된다. 가족역할중요도의 세 가지 하위영역은 하나의 역할에 대한 중요도를 묻는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리커트 척도(1=불일치, 5=일치)로 평가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가족역할중요도 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역할중요도 척도는 Amatea 등(1986)의 척도(Life Role Salience Scales) 문항을 약간 수정하여 이용한 홍성례(2001)의 척도를 본 연구대상자인 청년기 남녀 대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재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배우자역할중요도는 총 10문항으로, 결혼생활에 부여하는 가치, 결혼을 통해 얻은 만족감에 대한 기대, 결혼생활에 몰입하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려는 정도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배우자역할중요도 척도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나,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측정도구라고 할 수 있다. 부모역할중요도는 총 10문항으로, 자녀에 부여하는 가치, 자녀양육에 대한 기쁨과 보람, 자녀양육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려는 정도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부모역할중요도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나 매우 신뢰할만한 측정도구로 볼 수 있다. 가정경영역할중요도는 총 10문항으로, 가정에 부여하는 가치, 가정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 가정운영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려는 정도 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가정경영역할중요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85로, 매우 신뢰할만한 측정도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가족역할 중요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93으로 매우 신뢰할만한 측정도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79)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이용하였으며, 10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0.81이다.

3)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는 Demaris와 Longmore(1996), Kulik(1999)의 연구를 기초로 강기연(2000)이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성역할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성역할태도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76이다.

4)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척도는 부모와의 관계에 어느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 단일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매우 불만'(1점)에서 '매우 만족'(7점)까지의 7점 리커트 척도이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에 앞서 2008년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50명의 청년기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2008년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남녀 대학생들에게 56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것 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총 52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A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별, 종교,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만족도가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그리고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청년기 남녀 대학생의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영향력 있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Ⅳ. 연구결과

1.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있어서의 성차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대한 본 연구대상자의 전반적인 경향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자아존중감과 성역할태도의 평균 점수는 척도의 중간점수(3점)보다 높은 경향을 보여, 본 연구대상자인 청년기 남녀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비교적 높았고, 성역할태도도 비교적 근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 수준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 여자 대학생보다 남자 대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역할태도에 있어서는 남자 대학생보다 여자 대학생이 좀더 근대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만족도(M=5.53)에 있어서도 평균점수가 중간점수(4점)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수준은 비교적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음으로, 청년기 남녀 대학생의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배우자역할중요도와 부모역할중요도, 그리고 가정경영역할중요도 인식에서 중간점수(3점)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여 세 영역에서의 가족역할중요도를 대체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역할중요도의 하위영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인식정도를 보인 영역은 가정경영 역할중요도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역할중요도 인식영역은 부모역할중요도로 나타났다.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있어 성차를 살펴본 결과, 각 하위요인 모두에서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배우자역할과 부모역할, 그리고 가정경영역할에 있어서 중요도를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의 일반적 경향

다음에는 청년기 남녀 대학생의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를 상세하게 살펴보았다<표 2>. 먼저, 배우자 역할중요도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두는 내용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나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안정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싶다'는 바램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적인 목표추구의 기회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나는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싶다'와 '부부관계에 몰입하다보면 다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본다'라는 내용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여, 결혼과 부부관계에의 몰입에 대한 인식정도의 경향을 알 수 있다.

청년기 대학생의 배우자역할중요도 인식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부관계에 몰입하다보면 다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본다(#)'는 내용에서만 성차를 보이지 않았고, 배우자역할중요도 인식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내용들

<표 1>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의 차이 (N = 526)

변인		전체(N=526)	남자 (N=200)	여자(N=326)	t값
		M(SD)	M(SD)	M(SD)	
자아존중감		3.59(0.56)	3.71(0.58)	3.52(0.54)	3.75***
성역할태도		3.73(0.60)	3.53(0.62)	3.84(0.55)	-5.81***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5.53(1.40)	5.42(1.51)	5.61(1.32)	-1.47
가족역할중요도	전체 가족역할중요도	3.68(0.54)	3.85(0.50)	3.57(0.54)	6.00***
	배우자역할중요도	3.57(0.67)	3.82(0.61)	3.42(0.66)	6.84***
	부모역할중요도	3.54(0.66)	3.71(0.65)	3.43(0.65)	4.76***
	가정경영역할중요도	3.92(0.57)	4.04(0.57)	3.86(0.55)	3.58***

*p< .05 **p< .01 ***p< .001

<표 2>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의 일반적 경향 (N = 526)

문 항 내 용	전체 M(SD)	남자(n=200) M(SD)	여자(n=326) M(SD)	t값
배우자역할중요도	**3.57(0.67)**	**3.82(0.61)**	**3.42(0.66)**	**6.84*** **
결혼하지 않는다면, 내 삶은 공허할 것이다.	3.32(1.22)	3.68(1.17)	3.10(1.19)	5.44***
성공적인 결혼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3.61(1.15)	3.82(1.13)	3.48(1.15)	3.23***
결혼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었으면 한다.	3.65(1.02)	3.86(0.93)	3.52(1.05)	3.79***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나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3.87(1.03)	4.02(0.97)	3.77(1.05)	2.69**
내 삶의 주요한 만족이 부부관계에서 비롯되었으면 한다.	3.35(0.96)	3.64(0.92)	3.17(0.94)	5.56***
나의 배우자에게 사랑과 지지, 그리고 보살핌을 제공하는데 많은 시간을 기울이고 싶다.	3.72(0.90)	4.07(0.85)	3.50(0.87)	7.33***
많은 시간을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것은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3.83(0.89)	4.06(0.91)	3.70(0.86)	4.51***
안정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싶다.	3.84(0.82)	4.10(0.78)	3.68(0.80)	5.85***
부부관계에 몰입하다보면 다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본다(#).	3.25(0.99)	3.32(1.06)	3.21(0.95)	1.16
개인적인 목표추구의 기회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나는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싶다.	3.28(1.01)	3.60(1.00)	3.08(0.97)	5.91***
부모역할중요도	**3.54(0.66)**	**3.71(0.65)**	**3.43(0.65)**	**4.76*** **
부모역할이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에 대한 사랑과 기쁨은 모두 보람이 있을 것이다.	3.79(0.97)	3.94(0.99)	3.70(0.94)	2.70**
내가 만일 자녀를 갖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후회할 것이다.	3.83(1.16)	4.06(1.08)	3.68(1.18)	3.66***
나 자신을 유능한 부모라고 느끼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3.99(0.91)	4.19(0.93)	3.87(0.88)	3.86***
나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4.06(1.02)	4.22(0.92)	3.96(1.07)	2.94**
자녀가 없었다면, 내 삶은 공허할 것이다.	3.58(1.18)	3.83(1.11)	3.43(1.19)	3.81***
자녀를 갖고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기 보다는 오히려 내 자신의 계발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다(#).	3.19(0.96)	3.39(1.04)	3.08(0.88)	3.49***
나는 자녀양육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싶다.	3.30(0.94)	3.48(0.95)	3.19(0.92)	3.46***
나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상적인 일에 많이 몰입하고 싶다.	3.08(0.95)	3.26(0.92)	2.97(0.96)	3.47***
자녀양육에 관련된 일상적이고 세부적인 일에 몰입하다보면 내 생활의 다른 영역에 지장을 받을 것이다(#).	2.76(0.88)	2.90(0.98)	2.68(0.81)	2.70**
나는 자녀양육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다(#).	3.77(0.93)	3.82(0.92)	3.74(0.94)	1.00
가정경영역할중요도	**3.92(0.57)**	**4.04(0.57)**	**3.86(0.55)**	**3.58*** **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가정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4.02(0.88)	4.17(0.87)	3.93(0.87)	3.04**
편안하고 매력적인 가정을 갖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4.25(0.89)	4.34(0.90)	4.19(0.88)	1.85
가정을 잘 운영하는 것은 내 삶의 목표 중 하나이다.	3.89(0.88)	4.10(0.87)	3.76(0.86)	4.32***
나는 좋은 가정을 갖는 것에 매우 관심이 있다.	4.07(0.89)	4.20(0.90)	3.99(0.87)	2.62**
나는 생활할 장소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남에게 어떻게 보일 지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	3.19(1.05)	3.05(1.15)	3.28(0.97)	-2.43*
가정운영에 대한 일상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다(#).	3.85(0.93)	3.91(0.91)	3.82(0.95)	1.02
산뜻하고 매력적인 가정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고 싶다.	3.86(0.80)	4.03(0.79)	3.76(0.80)	3.82***
가정을 보호하고 즐거운 곳으로 만드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싶다.	3.99(0.79)	4.19(0.76)	3.87(0.78)	4.56***
가정을 잘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39(0.73)	4.46(0.75)	4.35(0.72)	1.72
가정을 유지하고 보호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싶지 않다(#).	3.73(1.02)	3.93(1.04)	3.60(0.99)	3.60***

*p< .05 **p< .01 ***p< .001
(#)한 문항은 재부호화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그 문항내용에 대해 중요도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에서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 대학생들의 배우자역할 중요도 인식수준이 여자 대학생들보다 높았다. 남자 대학생의 경우, '안정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싶다'는 내용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고, '많은 시간을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것은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나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내용들에서도 비교적 높은 중요도 인식수준(4점 이상)을 보였다. 그러나 '부부관계에 몰입하다보면 다른 생활

에 지장이 있다고 본다(#)'라는 내용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 인식을 보였다. 반면, 여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배우자역할중요도의 모든 하위내용들에서 어느 정도 높은 중요도 인식 주준(4점 이상)을 보인 문항은 전혀 없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나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문항에서는 다른 내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적 높은 중요도 인식을,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추구의 기회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나는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싶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중요도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 부모역할중요도 인식정도를 살펴본 결과, 청년기 대학생의 부모역할중요도 인식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내용은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에 대한 선호로,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인 내용은 '자녀양육에 관련된 일상적이고 세부적인 일에 몰입하다보면 내 생활의 다른 영역에 지장을 받을 것이다(#)'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역할중요도 인식에 있어서 상호모순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녀양육에의 몰입이 다른 생활영역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부모역할중요도 인식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녀양육에 깊이 관여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부모역할중요도 인식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하위내용들에서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 대학생들의 부모역할중요도 인식수준이 여자 대학생들보다 높았다. 부모역할중요도 인식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남자 대학생의 경우,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일에 대한 선호를 묻는 내용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 인식을 보였으며, '유능한 부모라고 느끼는 것의 중요성'과 '내가 만일 자녀를 갖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후회할 것이다(#)'는 내용들에서도 비교적 높은 중요도 인식수준(4점 이상)을 보였다. 그러나 '자녀양육에 관련된 일상적이고 세부적인 일에 몰입하다보면, 생활의 다른 영역에 지장을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에서는 중간점수(3점) 이하의 낮은 중요도 인식을 보였다. 반면, 여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배우자역할중요도 인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모역할중요도의 모든 하위내용들에서 높은 중요도 인식수준(4점 이상)을 보인 문항은 전혀 없었고, 남자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선호 내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 인식정도를 보였으며, '자녀양육에 관련된 일상적이고 세부적인 일에 몰입하다보면, 생활의 다른 영역에 지장을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에서 가장 낮은 중요도 인식을 보였다.

가족역할중요도의 하위영역 중 마지막으로 가정경영역할중요도에 대한 인식정도를 살펴보면, 가정경영역할중요도를 구성하는 내용 중 가장 높은 가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난 내용은 '가정을 잘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편안하고 매력적인 가정을 갖는 것의 중요성'과 '좋은 가정을 갖는 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가정의 중요성'에 있어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중요도 인식정도(4점 이상)를 보였다. 반면에, 가정경영역할중요도에서 긍정적인 가치부여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내용은 생활장소로서의 가정에 대한 타인의 시각 의식에 관련된 것이었다.

가정경영역할중요도 인식과 관련하여 청년기 남녀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족역할중요도의 다른 하위 영역과는 약간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가정 존재의 중요성'과 '가정을 잘 운영하는 것이 삶의 목표 중 하나'라는 것, 그리고 '좋은 가정을 갖는 것에의 관심', '산뜻하고 매력적인 가정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고 싶은 마음', '가정을 잘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가정을 유지하고 보호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싶어 하는 마음' 등의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들에서 남자 대학생들의 중요도 인식수준이 여자 대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할 장소에 대한 타인의 시각 의식'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여자 대학생들의 중요도 인식 수준이 남자 대학생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 모두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중요도 인식을 보였다.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가정경영역할중요도 인식에서 남자 대학생의 경우, '생활할 장소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남에게 어떻게 보일 지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와 '가정운영에 대한 일상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다(#)', 그리고 '가정을 유지하고 보호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싶지 않다(#)'는 의향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들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중요도 인식을 나타냈고, 특히 '가정을 잘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가장 높은 중요도 인식을 보였다. 반면 여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가정을 잘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와 '편안하고 매력적인 가정을 갖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에서 높은 수준의 중요도 인식(4점 이상)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역할중요도 인식을 보인 내용은 남자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생활장소로서의 가정에 대한 타인의 시각 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3. 청년기 남녀 대학생의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영향력 있는 변인들

이번에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종교,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과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만족도가 청년기 남녀 대학생의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표 3> 남자 대학생의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 = 200)

	<종속변인>							
	배우자역할중요도		부모역할중요도		가정경영역할중요도		전체 가족역할중요도	
<독립변인>	b	β	b	β	b	β	b	β
종교(있음=1)	0.14	0.11	0.15	0.12	0.15	0.13	0.15	0.14*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0.03	-0.05	0.02	0.05	0.03	0.06	0.01	0.02
자아존중감	0.23	0.22***	0.28	0.25***	0.18	0.18**	0.23	0.27***
성역할태도	-0.04	-0.04	-0.14	-0.14*	0.08	0.09	-0.04	-0.04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0.05	0.12	0.04	0.10	0.07	0.18*	0.05	0.16
상수	2.92		2.73		2.52		2.72	
F값	4.00**		6.33***		5.08**		6.98***	
R^2	0.09		0.14		0.12		0.15	
Durbin-Watson계수	2.26		2.07		2.02		2.09	

*p< .05 **p< .01 ***p< .001

<표 4> 여자 대학생의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 = 326)

	<종속변인>							
	배우자역할중요도		부모역할중요도		가정경영역할중요도		전체 가족역할중요도	
<독립변인>	b	β	b	β	b	β	b	β
종교(있음=1)	-0.03	-0.02	-0.02	-0.01	-0.09	-0.08	-0.05	-0.04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0.06	0.10	-0.02	-0.04	0.02	0.04	0.02	0.04
자아존중감	0.18	0.15**	0.32	0.27***	0.20	0.20***	0.24	0.24***
성역할태도	-0.34	-0.28***	-0.41	-0.35***	-0.20	-0.20***	-0.32	-0.32***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0.02	-0.04	0.04	0.08	0.01	0.02	0.01	0.02
상수	3.93		3.77		3.84		3.85	
F값	7.37***		13.23***		5.35***		10.69***	
R^2	0.10		0.17		0.08		0.14	
Durbin-Watson계수	1.81		1.71		1.79		1.73	

*p< .05 **p< .01 ***p< .001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인들 중에서 명목척도로 구성된 종교(있음=1, 없음=0)는 가변수 처리하였다.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의 존재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분산확대인자를 살펴본 결과, 모두 1.23이하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계수도 2에 가까워 잔차간에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다음의 중다회귀분석에 투입되는 독립 변인들은 상호 독립적임을 예견할 수 있으며, 독립 변인들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청년기 남녀 대학생의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청년기 남자 대학생의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배우자역할중요도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자아존중감(β=0.22)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배우자역할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역할중요도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자아존중감(β=0.25)과 성역할태도(β=-0.14)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남자 대학생은 부모역할중요도를 높게 인식하였다. 가정경영역할중요도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자아존중감(β=0.18)과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등의 2개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남자 대학생은 가정경영 역할중요도를 높게 인식하였다. 종합적으로, 청년기 남자 대학생의 전체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자아존중감(β=0.27)과 종교(β=0.14)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종교가 있는 경우에 전체 가족역할중요도를 높게 인식하였다. 남자 대학생의 전체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은 전체의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 청년기 여자 대학생의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배우자 역할중요도 인식, 부모 역할중요도 인식, 가정경영 역할중요도 인식, 그리고 전체 가족역할중요도 인식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일관적으로 자아존중감과 성역할태도 등의 2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기 여자 대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성역할태

도가 전통적일수록, 배우자역할중요도, 부모역할중요도, 가정경영역할중요도, 그리고 전체 가족역할중요도를 높게 인식하였다. 여자 대학생의 전체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은 전체의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남녀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청년들의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기 남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여자 대학생보다 남자 대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자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여자 대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엄혜정・정혜정(2006)의 연구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남정홍, 2001;노선, 2003)의 결과를 지지한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에 있어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김태현・이영자, 2005;홍성례, 2007)의 결과와는 불일치한다. 자아존중감에 있어 성차가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순수한 성차에 기인하는 것인지, 겸양지덕(謙讓之德)의 한국적 유교문화에 의한 것인지, 혹은 자신의 종교적인 성향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성역할태도는 남자 대학생보다 여자 대학생이 좀 더 근대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양명숙, 1996;Brewster & Padavic, 2000;황은, 2004;홍성례, 2006)의 결과와 일관적으로 일치한다. 이로써 청년기 남자 대학생들의 성역할 태도는 여자 대학생들에 비해 대체로 덜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역할태도에 있어 청년기 남녀간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미래의 결혼생활 영위에 부부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혼전 예비부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청년기 남녀 모두에게 성역할태도를 양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청년기 대학생들의 부모와의 관계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기 남녀 대학생의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가족역할중요도의 하위영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인식정도를 보인 영역은 가정경영역할중요도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배우자역할중요도 인식이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역할중요도 인식영역은 부모역할중요도로 나타났다. 전체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서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았으며, 하위영역인 배우자역할과 부모역할, 그리고 가정경영역할중요도 인식의 세 하위영역 모두에서 남자 대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 모두 가정경영역할중요도 인식 수준이 다른 역할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여자 대학생의 경우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의 세 가지 하위 영역들 중에서 배우자역할중요도 인식수준이 가장 낮았고, 남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역할중요도 인식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청년기 대학생들의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는 결과로, 남자 대학생의 경우 부모역할보다는 배우자역할에 좀 더 높은 중요도 인식을 보이지만, 여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가족역할들에 비해 배우자역할에 상대적으로 더 낮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있어서 여자 대학생보다 남자 대학생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앞서 Simon(1995)이 지적했듯이, 여성에게는 직업역할을, 남성에게는 반대로 가족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결혼 및 가족 관련 역할들이 남녀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사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고, Arber와 Cooper (2000)가 주장하듯이 기혼 여성의 취업과 자녀수의 감소 등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변화로 인해 남녀가 수행하는 역할 조합이 동일해지고, 가족내에서 경험하는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한유진・김선애(2007)의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생각과 태도, 그리고 행동 간의 괴리는 사람의 보편적인 행태 중의 하나이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이 곧 수행 및 행동으로 연결되지도 않을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실제 부부로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기혼 남녀가 아니라 미혼의 청년기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이므로, 가족역할중요도 인식 전반에 있어서의 성차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이 곧 가족역할수행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혼 및 가족생활의 현실을 미리 예견함에도 해석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 결혼 및 가족생활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는 남편과 부인의 가족역할인식 및 수행은 얼마든지 변화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맞벌이 가족에서 남편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한다할지라도 대부분의 부부들이 가사노동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Markman, Stanley, & Blumberg, 2001)로 판단할 때,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이 곧 결혼생활에서의 가족역할수행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다. 그러나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수준에 있어서 미혼의 청년들은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를 보이며, 특히 배우자역할과 부모역할에 부여하는 중요도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이 본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젊은 연령층의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을 살펴본 홍성례(2001)의 연구결

과와 부분적으로는 일치하면서도 약간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족역할중요도 중에서 가정경영역할중요도 인식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일치된 결과였으나, 자녀가 있는 젊은 기혼 남성의 경우, 부모역할중요도 인식수준이 배우자역할중요도 인식수준보다 높았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아직 미혼인 남자 대학생들의 경우 배우자역할중요도 인식수준이 부모역할중요도 인식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어쩌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기 남자 대학생의 입장에서 아직 배우자도 선택하지 않은 상황인데,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실제 배우자역할과 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혼 남성들의 중요도 인식수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혼생활의 실제를 경험하지 않은 남자 대학생들에게는 부모역할이 배우자역할의 부가적인 부분으로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의 하위영역들 중 가정경영역할중요도에서 가장 높은 인식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청년기 남녀 대학생들도 가정경영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치를 부여하며, 가족영역에서 생활의 즐거움과 만족을 찾으려는 청년들의 가족지향의식이 나타나고 있음을 일부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배우자역할중요도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 배우자 역할중요도 인식에 관한 내용들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및 안정된 부부관계 유지에 관한 내용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었으며,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인 것은 부부관계 유지를 위해 개인적인 목표추구의 기회 제한과 다른 생활에의 지장에 관한 내용이었다. 배우자역할중요도 인식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들에서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 대학생들의 배우자역할중요도 인식수준이 여자 대학생들보다 높았다. 남자 대학생의 경우, '안정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싶다'는 내용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고, 여자 대학생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나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내용에서 다른 내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적 높은 중요도 인식을 보였다. 특히 여자 대학생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목표추구의 기회를 제한하면서까지 부부관계에 몰입하려는 인식은 높지 않았다. 이에 반해 남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안정된 부부관계 유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며, 부부관계의 몰입이 다른 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역할중요도 인식에 있어서 청년기 남녀 대학생간에 성차가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결혼생활의 실제를 경험하지 않은 미혼의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 배우자상의 변화와 함께 결혼가치관에도 많은 변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부모역할중요도 인식정도를 살펴본 결과, 가장 높은 수준의 부모역할중요도 인식을 보인 내용은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에 대한 선호이며,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중요도 인식을 보인 내용은 '자녀양육에의 몰입이 다른 생활영역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의 청년 세대들의 부모역할중요도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긴 하지만, 자녀양육에의 몰입이 다른 생활영역에 어느 정도 지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부모역할중요도 인식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녀양육에 깊이 관여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부모역할중요도 인식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하위내용들에서 남자 대학생들의 부모역할중요도 인식수준이 여자 대학생들보다 더 높았다. 남자 대학생의 경우,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일에 대한 선호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 인식을 보였으며, '유능한 부모라고 느끼는 것의 중요성'과 '내가 만일 자녀를 갖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후회할 것이다'는 내용들에서도 비교적 높은 중요도 인식을 보였다. 반면, 여자 대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배우자역할중요도 인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모역할중요도의 모든 하위내용들에서 비교적 높은 중요도 인식주준을 보인 내용은 거의 없으며, 남자 대학생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선호 내용에서만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 인식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과 부모역할의 의미에서 남녀의 성차가 있음을 지적하는 연구들(Bernard, 1972;차승은 · 한경혜, 2006a)의 결과와 일치하며,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높고,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응답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삼식 외, 2006)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미혼의 청년기 대학생들의 부모됨이나 부모역할중요도 인식에 있어 그 의미나 동기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에 비해 전체 부모역할 및 하부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여자 대학생들이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권미경(2004)의 연구결과, 그리고 여자 대학생들은 남자 대학생들보다 부모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이해 및 양육방법에 관련된 영역을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김지은(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 모두 '자녀양육에의 몰입이 다른 생활영역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인식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여, 부모가 되어 자녀양육에 몰입한다면, 자신의 다른 생활영역에 어느 정도 지장을 줄 것임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한국사회의 저출산문제가 보육지원 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음을 예견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부모역할중요도 인식 내용 중에서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선호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 인식수준을 보였다는 것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많이 증가하였다고 지적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청년기 대학생들에게도 부모역할은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가정경영역할중요도 인식에 대한 연구결과, 청년기 대학생들은 '가정 유지와 운영을 위한 책임감'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안하고 매력적인 가정을 갖는 것의 중요성'과 '좋은 가정을 갖는 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가정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중요도 인식을 보였다. 반면에, '생활장소로서의 가정에 대한 타인의 시각'에 관한 내용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중요도 인식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에 가정을 형성할 젊은 세대들이 가정경영 책임에 대한 역할수행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자신의 가정을 관습적이거나 규범적인 틀 속에 얽매이게 하는 타인들의 시각에는 큰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경영역할중요도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 대학생의 경우, 대부분의 내용들에서 여자 대학생들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중요도 인식을 나타냈고, 특히 '가정 유지와 운영에 대한 책임감'과 관련된 내용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 인식을 보였으나, 여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가정 유지와 운영에 대한 책임감'과 '편안하고 매력적인 가정을 갖는 것에 대한 관심'에서만 비교적 높은 중요도 인식을 보였다. 한편, 가정경영역할중요도 인식과 관련하여 '생활 장소로서의 가정에 대한 타인의 시각'과 관련된 내용에서만 성차에 따른 특이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여자 대학생들의 중요도 인식이 남자 대학생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자 대학생들의 경우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인식하는 경향이 더 많았다. 본 연구에서 청년기 대학생들의 가정경영역할중요도 인식에 있어 남녀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영철(2004)도 지적하였듯이, 최근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개인생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양상이 뚜렷하여 가정경영역할 중요도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반영한다. 과거에는 가정을 보살피는 일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 가정주부인 여성이며, 남성들은 대부분 가정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해도 직장생활을 잘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던 경향이 변화가 오기 시작했음은 분명하다. 가족역할 중에서 가정경영역할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특히 청년기 남자 대학생들에게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청년기 남녀 대학생의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여자 대학생의 경우, 전체 가족역할중요도 인식 및 각 하위영역 역할중요도 인식에 자아존중감과 성역할태도의 2개 변인이 일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자 대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 변인만이 일관적인 영향을 미쳤고, 부모역할중요도 인식에는 성역할태도 변인이, 가정경영역할중요도 인식에는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변인이, 그리고 전체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는 종교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청년기 남녀 대학생의 전체 가족역할중요도 및 배우자·부모·가정경영 역할중요도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변인으로 드러났다.

청년기 남녀 대학생의 전체 가족역할중요도 인식과 각 하위영역의 역할중요도 인식에 일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자아존중감으로,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전체 가족역할중요도와 하위영역들인 배우자역할중요도, 부모역할중요도, 그리고 가정경영역할중요도 등의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부모역할을 더 잘 수행하는 성공적인 부모됨(parenting)과 관련 있음을 제시하는 선행연구들(Donovan, Leavitt, & Walsh, 1990;Fish & Stifter, 1993;Jaffe, 2000)을 일부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성역할태도 변인은 청년기 여자 대학생의 경우에 모든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영역에 일관적으로 부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여자 대학생의 전체 가족역할중요도, 배우자역할중요도, 부모역할중요도, 그리고 가정경영역할중요도 인식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 대학생의 경우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이 전통적이거나 보수적인 성역할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족과 관련된 역할들의 중요도 인식에 있어서는 전통적이거나 보수적인 성역할태도가 여전히 중요한 요인임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에 남자 대학생의 경우 성역할태도는 부모역할중요도 인식에서만 부적인 영향력이 있는 유의미한 변인이었고, 그 이외의 역할중요도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 대학생에 대한 연구결과와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성역할태도가 청년기 남녀 대학생의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하며, 여자 대학생의 경우 전통적이거나 보수적인 성역할태도가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임을 제시한다.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변인의 경우에는 예상과는 달리, 가족역할중요도 하위영역들 중에서 남자 대학생의 가정경영역할중요도 인식에서만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남자 대학생의 가정경영역할중요도 인식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역할이 자신이 출생한 근원가족(family of origin)에서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는 정옥분·정순화(2008)의 주장과 부모역할은 자신의 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게 된다는 van IJzendoorn(1992)의 견해를 일부분 지지하는 것으

로 볼 수 있지만, 자신의 실제 결혼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미혼의 청년기 남녀 대학생들에게는 그 영향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 변인의 경우, 남자 대학생의 전체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만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어, 종교가 있는 경우에 남자 대학생의 전체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이 높아졌다.

한편, 본 연구에서 청년기 대학생들이 평가한 자기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전체 가족역할중요도 및 배우자・부모・가정경영 역할중요도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신의 결혼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기 남녀 대학생들에게는 가족의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청년들의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있어서, 여자 대학생보다는 남자 대학생이 전반적으로 더 높은 역할중요도 인식을 보여, 남자 대학생들이 가족역할중요도를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도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들 간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있어서의 성차를 반영하며, 가족 관련 가치관 변화에 남녀의 차이가 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제기와 함께,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갈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젊은 청년들에게 인식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기 이전의 심리정서적인 준비를 위해서 청년기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부부 교육프로그램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결혼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미래 가족을 형성하게 될 청년기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성별 구분 없이 남녀 모두가 건강하고 평등한 가족역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역할 수행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부모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남자 대학생의 가정경영역할중요도 인식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승은・한경혜(2006a)의 연구에서는 부모역할을 통한 보람과 기쁨은 남성과 여성의 우울감을 낮추는 주요 요소였을 뿐 아니라 남성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술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족관계와 가족역할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개인의 삶과 건강한 가족의 삶에서 가족관계와 가족역할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연구주제들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LeMasters(1957)는 많은 부부들이 부모가 되는 것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준비 없이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기도 했지만(조성연, 2006), 한편으로는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한다거나 혹은 부정적인 의미부여를 현실화하여 부모되기를 도전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는 청년 세대들의 증가 또한 염려가 되는 부분이다. 도전하거나 시도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될 수는 없다. 인간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성숙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며, 결혼한 사람이나 낭만적인 관계 혹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덜 느낀다(토머스, 2006)거나, 결혼한 사람이 더 행복하고 안정적(연합뉴스, 2004)이라는 견해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관계와 결혼 및 가족 역할, 특히 부모됨의 역할에 긍정적인 의미를 유도하는 연구들도 미래에는 증가하길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남녀 대학생들의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자아존중감과 성역할태도,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종교,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이외에도 청년기 남녀 대학생들의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청년기 남녀 대학생의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청년기의 일부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세대 특성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한국 청년 전체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해석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가족역할중요도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혼의 청년기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 관련 다중 역할들을 독립적이고도 복합적으로 다루어 그들이 가족역할에 부여하는 역할중요도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또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은 청년기 남녀 대학생의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고,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그리고 종교 등의 변인들이 청년기 남녀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다소 상이하고 제한적인 영향력을 보이긴 했지만,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변인들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강기연(2000). 맞벌이 부부의 공평성 인지・의사결정 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 - 사무직, 관리・전문직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권미경(2004). 대학생의 부모역할 인지에 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10(4)**, 413-422.

김경신・김미란(1988).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의식과 실행연구. **목표대학교 논문집**.

김승권(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지은(2000).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도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2(3)**, 47-58.

김태현・이영자(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기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173-193.

남정홍(2001).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선(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과 자아상태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방희정(2009). 애착 연구를 통해 본 부모역할(parenting)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4(1)**, 67-91.

양명숙(1996). 예비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2)**, 167-181.

엄혜정・정혜정(2006).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삼인군 경험이 자아존중감 및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2)**, 137-152.

연합뉴스(2004. 6. 24.). 결혼한 사람이 더 행복하고 안정적이다.

유계숙・정현숙(2002).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에 대한 청년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39-47.

유안진・신양재(1993). 대학생의 부모됨 동기와 부모역할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4)**, 141-155.

이삼식 외(2006).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2006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선미・김경신(1996).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태도: 모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1)**, 49-64.

정영철(2004). CEO 리포트: 미래 인사 트렌드 6. **LG주간경제**.

정옥분・정순화(2008). **부모교육**. 학지사.

조복희·정옥분·유가효(1997). **인간발달: 발달심리적 접근**. 서울:교문사.

조성연(2006). **예비부모교육**. 서울:학지사.

조성연(2007).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에 대한 부모됨의 의미와 감정이입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8(3)**, 219-233.

조정문 외(1999). 정보화시대의 공동체-가족규범의 변화. **한국사회학 제33집 여름호,** 389-415.

차승은・한경혜(2006a). 가족역할과 심리사회적 자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성과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81-114.

차승은・한경혜(2006b). 남녀의 가족 역할 점유와 건강문제. **한국인구학 29(2)**, 167-194.

토머스 지음, 정명진 옮김(2006). **나에게 던지는 1000가지 질문**. 들녘.

통계청(2009). 2008년 출생통계 결과.

한유진・김선애(2007).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 및 아버지의 양육수행유능감과 양육수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37-46.

함인희(2000). 정보화와 가족생활의 변화.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 15: 59-80.

홍성례(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성례(2001). 기혼 남성의 가족・직업 역할중요도 인식과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성례(2006). 자아존중감과 성역할태도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청년기 남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37-51.

홍성례(2007). 낭만적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사랑유형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1)**, 169-182.

황은(2004). 1991년도와 2002년도 남녀 대학생의 가정내 역할에 대한 성역할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77-89.

Amatea, E. S., Cross, E. G., Clark, J. E., & Bobby, C. L.(1986). Assessing the work and family role expectations of career-oriented men and women: The Life Role Salience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831-838.

Arber, S. and Cooper, H.(2000). Gender and inequalities in health across the life course in E. Annandale & K Hunt(Edt). *Gender and inequalities in health*.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Balbernie, R.(2001). Circuits and circumstances: The neurobiological consequences of early relationship experiences and how they shape later behavior. *Journal of Child Psychotheraphy, 27(3)*, 237-255.

Bernard, J.(1972). *The future of marriage*. New Haven, CT : Yale University Press.

Brewster, K.L. & Padavic, I.(2000). Change in gender-ideology, 1977-1996;the contribution of intracohort change and population turnov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477-487.

Cabrera, N. J., Tamis-LeMonda, C. S., Bradley, R. H., Hofferth, S., & Lamb, M. E.(2000). Fatherhood in the twenty-first century. *Child Development, 71*, 127-136.

Coltrane, S.(1996). *Family man : fatherhood, housework, and gender equ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Demaris, A., Longmore, M. A.(1996), -Ideology- Power and

testing competing explanations for perception of fairness in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4*(3), 1043-1071.

Donovan, W. L., Leavitt, L. A., & Walsh, R. O. (1990). Maternal self-efficacy: Illusory control and its effect on susceptibility to learned helplessness. *Child Development, 61*, 1638-1647.

Fish, M., & Stifter, C. A.(1993). Mother parity as amain and moderating influence on early mother infant interactio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4*, 557-572.

Gould, M. S., Greenberg, T., Velting, D. M., & Shaffer, D. (2003). Youth suicide risk and preventive interventions: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ic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2*(4), 386-405.

Jaffe, M.(2000). **부모교육**(공인숙・권영옥・김영주・문무경・이강이・이경화・이완정・한미현 역). 서울: 창지사.

Kulik, L.(1999), Marital Power relations, resources and gender role ideology:A Multivariate model for assessing effect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0(2)*, 189-207.

Lamb, M. E.(1986). The changing roles of fathers. In M. E. Lamb (Ed.),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s* (pp. 3-27). New York: John Wiley & Sons.

Lamb, M. E.(Ed.).(1997).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3rd ed.). New York: Wiley.

Lamb, M. E., Pleck, J. H., & Levine, J. A.(1987). Effects of increased paternal involvement on fathers and mothers. In C. Lewis & M. O'Brien (Eds.), *Reassessing fatherhood: New observation on fathers and the modern family* (pp. 109-125). Newbury Park, CA: Sage.

LeMasters, E. E. (1957). Parenthood as Crisis. *Marriage and Family Living, 19*(4), 352-355.

Markman H. J., Stanley S. M., Blumberg S. L.(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New and Revised. Jossey-Bass, Inc. a John Wiley & Sons, Inc. Company.

Maume, D. J.(2006). Gender differences in restricting work efforts because of family responsibilit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 859-869.

Morahan-Martin, J.(1991). Consider the children : Is parenthood being devalued? *Psychological Record, 41*, 303.

Olson D. H., Olson A. K.(2000). *Empowering Couples*. Life Innovations, Inc., Minneapolis, USA.

Parke, R. D.(1996). *Fatherhoo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leck, J. H.(1985). *Working Wives/Working Husbands*. Sage Publication: Beverly Hills.

Simon, R. W.(1995). Gender, multiple roles, role meaning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 182-194.

van IJzendoorn, M. H.(1992).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ing: A review of studies in nonclinical populations. *Developmental Review, 12,* 76-99.

Walsh, F.(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Guilford Press, New York, USA.

Walsh, F.(2002), **가족과 레질리언스**. (양옥경・김미옥・최명민 역, 원저: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나남출판. (원저, 1998 출판).

Winters, N. C., Myers, K., & Proud, L. (2002). Ten-year review of rating scales Ⅲ:scale assessing suicidality, cognitive style and self-esteem,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ic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1*(10), 1150-1181.

Woodworth, S., Belsky, J., & Crinic, K.(1996). The determinants of fathering during the child's second and third years of life: A developmenta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679-692.

□ 접 수 일 : 2010년 05월 14일
□ 심 사 일 : 2010년 06월 25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08월 23일